



주거 최우수작 '낮은 공방과 높은 주방의 집'

‘광주건축도시문화제’

9월3일~14일 시청 1층 시민홀
‘광주시 건축상’ 수상 작품 전시

건고싶은 거리 광주 가로 경관을 꿈꾸다

건축은 사람과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이다. 문화와 예술이 집약된 종합적인 콘텐츠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다.

근래에 건축을 모티브로 다양한 책과 작품, 방송 콘텐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서 깊은 국내외 건축물을 탐방하고 이를 콘텐츠화해 유튜브에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오늘날 문화와 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와 맞물려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 건축의 현주소는 물론 미래를 가능하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펼쳐진다. 연합회는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모인 단체다.

이번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주제는 ‘건축도시, 걷고 싶은 거리-가로 경관’. 광주를 걸을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도구가 편한 공간을 상상하고 꿈꾸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정했다.

건축도시문화제에서는 ‘2024 자랑스런 광주건



비주거 최우수작 '보이저 진열'



축인’을 추대하고 제28회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를 비롯해 2024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 등 다양한 작품과 모형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진행된 그림그리기 생대회 수상작도 만날 수 있다. 사진 공모전에서는 지역 내 일상 속 건축과 도시, 공간 이야기를 담은 사진 수상작이 관객들을 맞는다.

또한 미래 도시건축문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대학 건축 전공 학생들의 우수 작품을 비롯해 연합회 회원들의 우수 설계 작품도 전시된다.

올해 28회 건축상 수상작은 부문별 ▲사회공공 우수작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이원일) ▲주거 최우수작 ‘낮은 공방과 높은 주방의 집’ (박지현, 조성학), 우수작 ‘일곱 하얀집’ (임태형), ‘장덕동 1231번지’ (허만수) ▲비주거 최우수작 ‘보이저 진열’ (박재홍), 우수작 ‘카페 루브시’ (소상용) 등이 선정됐다.

2024 아름다운문화도시 공간상은 ‘동구인문학당’, ‘아우르 Owlr’을 선정했다. 푸른길 공원과 연계된 주변을 대상으로 푸른길이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한 공간을 발굴하는 목표를 두고 두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지역 건축발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에는 천득영 전남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천 교수는 한국학호 남진흥원장을 비롯해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및 석좌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근현대 광주사람들’, ‘미안마의 역사문화와 불탑’, ‘은일과 사유의 공간 소쇄원’,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 등을 펴냈다.

유창균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은 “이번 건축도시문화제는 건축인은 물론 건축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 그리고 건축문화에 이끌어갈 미래의 학생들 누구나 참여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했다”며 “무더위가 끝나고 조금씩 선선해지는 가을 초 건축을 모티브로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축 민원 상담도 진행한다. 포토존도 설치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여름밤 음악회...여성 솔리스트 앙상블

‘일 페아프로’ 정기연주회, 23일 광주예술의전당

시와 노래, 그림은 저마다 장르는 다르지만 예술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맥을 함께한다.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미산 허형 등 호남을 거점으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에 성악을 곁들인 공연이 펼쳐진다.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 ‘일 페아프로’ (대표 김진희)가 ‘Sing of Masterpiece’를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산중은가’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1부는 일 페아프로 전 단원이 함께 부르는 노래 ‘풍월’로 막을 연다. 정여련의 곡에 기대승의 시를 접목하고 허백련의 ‘일출이작’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이어 허형의 ‘매화 12곡 병풍’과 조화를 이루는 ‘나 하나 꽃피어’는 소프라노 최효리, 메조소프라노 정상희·김혜원이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진희·이지연의 ‘4월의 노래’는 박목월의 시, 허건의 ‘목련동’과 함께 울려 퍼진다. 이어 ‘무등산’, ‘새타령’ 등 곡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오페라 곡들로 채워지는 2부는 펠트란트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차이코프스키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등을 부른다. 이외 조제프 페이 ‘파우스트’ 중 ‘보석의 아리아’, 스테너 ‘마왕’ 중 ‘마왕’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2021년 광주에서 창단한 일 페아프로는 독일,



앙상블 ‘일 페아프로’, <일 페아프로 제곡>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서 유학한 여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역에서는 월봉서원 초청연주,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초청연주를 비롯해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작곡가 김희은 편곡시리즈 등을 선보여 왔다.

김진희 대표는 “의재, 남농, 미산 등의 작품을 활용할 수 있게 협조해 준 의재미술관과 전남대 박물관 등에 감사하다”며 “시와 그림, 성악이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이 관객들의 마음속에 ‘공명’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역동적인 순간 ‘몸짓’에 주목하다

광주 수드로잉회 ‘몸짓 이多-MOMENT’ 전, 22~28일 무등갤러리

아주 짧은 시간 대상의 특징을 포착해 표현해내는 것을 크로키라 한다. 세부 묘사보다는 대상의 순간적인 특징을 잡아 화폭에 투영하는 것이다. 특히 누드 크로키는 모델의 맨몸을 일정한 거리에서 짧은 시간 묘사하는 작업이다. 순간적인 직관력과 형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 수드로잉회가 ‘몸짓 이多-MOMENT’ 전을 갖는다. 22일부터 28일까지 동구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진행하며, 개막일인 22일 오후 4시에는 퍼포먼스 공개크로키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40년의 역사를 지닌 부산의 ‘藝, 누드화’와 대구 창작실험프로젝트팀 ‘NABE’가 참여해 그 의미가 각별하다.

매주 시립미술관 문화센터에서 누드크로키 작업을 해온 광주 수드로잉회는 이번 전시에서 순간적이며 역동적인 ‘몸짓’에 주목한다.

전현숙 작가의 ‘춤추는 몸’은 특유의 리듬감이 느껴진다.

답답한 무언가를 풀어내려는 듯한 동작은 보는 이에게 시원함을 선사한다. 순간적으로 포착한 모델의 움직임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내면의 억압 같은 것을 분출하려는 듯 화면 속 여인은 자유롭기만 하다.

김성신 작가의 ‘붓으로 춤을 추듯’은 선이 굵고 동작이 우아하다. 한 번에 붓으로 그린 듯한 선에서는 답답하면서도 잔잔한 유희 같은 게 느껴진다.

기획을 맡은 전현숙 작가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풍경을 묘사하면서 거대한 우주나 땅의 역사,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흔적까지도 담아내듯, 사람의 맨몸을 소재로 하는 누드크로키는 몸이 지닌 각각의 표정과 내밀한 세계를 옮겨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등갤러리 전시 지원 공모에 선정돼 일부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성신 작 ‘붓으로 춤을 추듯’

전남문화재단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29명 예술가 선정

시각, 청각, 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돕는 지원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은 ‘2024 전남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우연 등 총 29명 예술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전시, 출판,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활동 일환으로 창작장애가 있는 예술인 이우연 (지휘자)의 ‘가인의 길 콘서트’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순천청춘창고에서 펼쳐진다. 이 지휘자는 그동안 순천KBS합창단 (지휘), 순천 시민대학 (강사)을 거쳐 거리공연과 콘서트 등을 선보

여 왔다. 기획에 청년예술가 강수화 시인.

이우연 지휘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공연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장애 예술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단과 청년예술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다”고 언급했다.

공연은 오연아·김상복 시인의 시 낭송을 비롯해 서민주의 ‘선무’, 조흥현의 아코디언 연주, 서민주·최현숙·김명남 시조시인의 ‘시조창’ 등으로 채워진다. 발라드 (이우연), 민요 (양승화, 이금순), 바이올린 (황희정), 발라드 (이우연) 등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라는 의무감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의 ‘모습’ 무용수들의 ‘몸짓’

알.에이 컴퍼니 ‘오늘, 시’,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알.에이 컴퍼니가 무용극 ‘오늘, 시’를 선보이는 모습.

경양방송, 학동팔거리 등은 옛날 모습을 감춰지만 광주의 역사를 품은 공간들이다. 무용수들이 이들 장소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댄스 필름에 담고, 과거와 오늘날 광주의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알.에이 컴퍼니 (대표 위보라)가 무용극 ‘오늘, 시’를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현재 광주를 살아가는 이들이 과거 ‘공간’을 매개로 느끼는 감정을 가·무·악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알.에이 컴퍼니는 지난해부터 무용 창작 리서치 과정을 거쳐 ‘본다, 보다’라는 주제를 발굴해 자체 레퍼토리를 개발했다. 대표이자 안무가인 위보라를 비롯해 무용수 김민승, 이현섭, 전준근, 배소미, 주정현 등이 출연하며 콘템포러리적 해석을 가미한 안무들을 펼친다.

작품의 부제는 ‘증언 (Testimony)’이다. 소멸한 공간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 현존하는 5·18의 아픔까지도 관객들에게 몸짓 언어로 ‘증언’하겠다는 의도다.

알.에이 컴퍼니 박윤아 PD는 “광주의 비극적인 과거와 현재 모습 등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번 공연은 음악, 무용, 시각예술 등이 어우러진 오디오 비주얼 아트를 지향한다”며 “특히 광주의 ‘정신’, ‘순간’, ‘공간’을 상징하는 키워드 ‘시’ (詩·時·市)는 다의적인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무용극 ‘오늘, 시’는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의 2024 광주문화자산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창작됐다. 전석 2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알.에이 컴퍼니 제곡>